전남 어린이집 없는 읍면동 무려 79곳

295곳중 27% 미설치… 농어촌 보육 인프라 절실

전남지역에서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읍면동이 무려 7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농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 보육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농어촌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295개 읍면동 가운데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79곳으로 27%에 달했다.

읍면동 10곳 가운데 3곳 가량은 어린이집이 없어 인근지역에 아이를 맡기거나 가정에서 보육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설치 지역은 화순군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담양 8곳, 보성과 장성이 6곳, 구례·영광이 각 5곳 등이다.

도시지역인 목포와 여수시도 각 1개 동(洞)씩 어린이집이 없으며 도농복합지역인 광양시는 옥룡, 다압, 골약 등 3개면에 어린이집이 미설치됐다.

특히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싼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23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8개 읍면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셈이다. 22개 시군 중 담양, 강진, 함평 등 3곳은 아예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무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도 4100여명에 불과하고 전체 아동 대비 이용률은 7.4%에 그쳤다.

전남도내 어린이집은 가정 508곳이 가장 많고 민간 386곳, 사회복지법인 177곳, 국공립 79곳, 법인단체 54곳 등 모두 1218곳이다. 이용 원아는 5만6481명이다.

전남발전연구원 김대성 책임연구위원은 "시군별 영유아 보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읍면 1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며 "교직원 처우개선, 보육예산 확충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학생 해외탐방 연수 책으로 펴내

함평고, 연해주 탐방 보고서 발간

함평고가 학생들의 해외탐방 연수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

이 보고서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 세계문화탐방 동아리 '세계로'소속 학생 19명과 양정열 지도교사의 해외탐방 연수 기록을 담고 있다.

함평고는 학생들의 세계관과 민족애 고취를 위해 격년제로 해외탐방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연해주의 중심도시인 블라디보스톡과 고려인의 생활 거점지역인 우수리스크 일대를 탐방하고 돌아왔다.

'연해주 속에 살아있는 한민족의 숨결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조사해온 연해주의 역사와 문화, 연해주에 산재해 있는 발해의 유적지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의 활동상들을 학생들의 탐방기와 함께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부록으로 '함평고 해외탐방 계획서'를 첨부해 동아리 중심의 해외 탐방에 관심이 있는 학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해외탐방 연수에 참여한 1학년 박상엽 군은 "한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고 돌아와 너무 뿌듯하고 기뻤는데 내가 제출한 보고서가 책자로 발간된 것을 보니 감격스럽고 연수가 나에게 의미있는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고 장용준 교장은 "학생들이 세계를 상대로 꿈을 펼치는 민족애를 지닌 지구촌 사람으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키고 큰 꿈을 지지해 주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으로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국립 호남 생물자원관 목포 남항에 건립된다

타당성 재조사 최종 확정

호남권 생물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국립 호남 생물자원관'의 목포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목포시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미흡평가를 받았던 호남권 생물자원관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B/C)가 5.14로 조사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조사에는 주민 호응도와 소득세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난 점이 타당성 재조사에 반영돼 건립 확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됐다.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설계와 공사 착공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호남권생물자원관이 들어설 남항매립지 일대는 도심에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삼학도 공원과 갓바위 문화타운 등을 연결하는 생태 문화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호남권생물자원관은 도서·연안 생물자원조사, 호남권 및 다도해 생물자원 확보 관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식량산업과 생물의약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이 될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종득 시장은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건립되면 자연사박물관, 목포문학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등 갓바위 관광문화권을 비롯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어린이바다 과학관 등 삼학도 관광문화권과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로 향후 목포시가 문화클러스터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남권생물자원관은 목포시 남항매립지 일원 12만1508㎡의 부지에 연면적 1만88㎡로 수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5년간 472억원(국비)을 투입해 전시·교육동, 수장연구동, 생태체험시설 등이 건립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포스코 사상 처음으로 여성 크레인 기사가 된 4명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첫 여성 크레인 기사 탄생

김수정씨 등 4명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특채된 기혼 여성들이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크레인 운전 등 현업부서에 배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스코에 특별 채용된 기혼여성 14명중 송은하(38·생산기술부)씨 등 6명이 직무 전문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수정(32)씨는 선박용 수출 제품을 배에 싣는 크레인을 운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씨는 "맨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의 부푼 기대와 설렘으로 다시 시작하는 직장생활을 포스코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며 "남자 동료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전문성을 갖춘 당당한 조직의 일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출하제품을 선적하는 크레인은 코일과 후판제품등 중량물을 선박에 싣는 작업으로 숙련된 기술은 물론 안전성 및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섬세한 여성의 감각이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훈련은 물론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대기업중에서는 처음으로 200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특별채용'을 실시해 결혼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 둔 30~40대 기혼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부서 배치된 6명도 100대1의 높은 경쟁력을 뚫고 입사해 4주간의 집합교육과 9주간의 현장부서 직무훈련을 거쳤다.

광양제철소에는 이들을 포함해 44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특채돼 근무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개발공사-주택금융공사 업무 협약

전남개발공사가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전남개발공사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주택금융공사 김재천 부사장을 비롯해 관계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3.0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으로 전남도민의 주거비용 경감과 복지증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협약내용은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상호 협력, 신규 공급주택의 주택금융 신용보증료 인하, 보유자산의 자산유동화, 새로운 주택금융서비스 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 주택공급 계획이나 주택금융 상품 및 국내·외 주택금융동향 등에 관한 상호 정보 교류 등이다.

전승현 사장은 "이번 업무제휴로 보증수수료가 전세자금보증 이용 때 50%, 중도금보증 이용 때 25%가 각각 할인돼 입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곡성에 첫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섬진강기차마을 전통시장내

곡성군은 27일 섬진강기차마을 전통시장 내 증축 장옥에서 곡성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곡성에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118㎡로, 규모는 작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가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한다. 특히 농가가 직접 품목을 선별, 포장한 뒤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판매한다.

또한 채소는 판매 잔량을 저녁에 수거해 당일 생산, 당일 소비하는 1일 유통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신선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생산자는 유통마진을 줄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의 매개체로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곡성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20농가가 입점해 7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조합원 외에 참여를 원하는 일반 중소농들도 참여할 수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동지팥죽 체험 참가자 모집

전남도농업박물관

전남도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은 전통 24절기 중 하나인 동지(冬至) 문화를 체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가족단위 신청자 300명을 선착순 접수하며 행사는 12월 22일 오전 10시 박물관 내 농경문화체험관 일원에서 치러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업박물관이 잊혀져 가는 절기 음식 문화 가운데 '사악한 잡귀를 쫓아낸다'는 의미가 있는 동지팥죽을 가족과 함께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농경문화체험관 일원에서 박물관이 미리 준비한 재료를 이용해 참가자들이 직접 새알심(단자)을 빚어 팥물이 끓는 가마솥에 넣고 팥죽을 만든다. 부대행사로 '고구마 구워먹기'도 곁들여진다. 참가 방법은 오는 12월 21일까지 전화(061-462-2796~9)나 이메일(mh3812@korea.kr) 등에 신청하면 된다. 체험 참가비는 1인당 3000원이며, 박물관 입장료는 무료다.

/오광록기자 kroh@